

# Q&A

## Q. 왜 토목 엔지니어에서 AI엔지니어로 전환을 했는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업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 토목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에 자주 직면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컴퓨터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산업 현장에 완벽히 적용되어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컴퓨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도전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 Q. 이 페이지를 소개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ChatBot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공간이다. 우리는 여기서 오직 영어로 소통을 하고 직접적으로 메일을 주고 받지 않아도 ChatBot을 통해 나와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ChatBot뿐만 아니라 이 페이지에서 당신은 나의 프로필, 타임라인, 프로젝트 그리고 인터뷰같은 나의 소개를 볼 수 있다. 나는 웹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페이지의 디자인은 트렌디 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주면 좋겠어

## Q. 앞으로 어떤 연구나 분야에 집중하고 싶은가?

나는 스마트 시티 분야에 관심이 있다. 과거에는 도심 속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직접 도시를 순찰해야 했지만, 지금은 CCTV가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이처럼 나도 앞으로는 더 발전된 기술을 통해 도심 속 일상생활에서 안정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편리함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 일반 도시에서 스마트 도시로 AI를 적용해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내 목표다.

## Q. 당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는 엔지니어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에스컬레이터다. 그러나 나는 그 위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다. 쉬지 않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효율적인 사람이다.

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해, 효율 위에 성실을 더하고, 성실 속에 효율을 담아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엔지니어다.

### **Q. 롤모델은 누구인가?**

나의 롤 모델은 조셉 스완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을 토마스 에디슨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전구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조셉 스완이다. 에디슨은 분명 전구를 상용화하고 널리 알린 인물이지만, 세상에 '빛'을 처음 가져온 발명가는 스완이었다. 그의 발명 덕분에 인류는 어두운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2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내가 그를 롤모델로 삼는 이유는, 그의 발명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 속 행복과 편리함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나 또한 조셉 스완처럼, 내가 개발하는 기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 **Q. 앞으로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나?**

10년 뒤의 나는 분명 지금보다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쌓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사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수도 있고, 대기업에서 높은 성과와 보상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은 그런 외적인 성취가 아니다. 나는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어려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싶다. 비록 육체는 세월에 따라 늙어가겠지만, 나의 내면만큼은 여전히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란다.